

별 지

#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안)

2024. 11. 6.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추진 배경 .....	1
II.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2
III. 추진 전략 .....	6
IV. 세부 추진방안 .....	7
1. 지방시대 벤처펀드 신설 .....	7
2.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 제도 운영 .....	9
3. 지방 벤처투자 인프라 확충 .....	11
V. 추진 일정 .....	13

## I . 추진 배경

- 창업·벤처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역할
  - 에이투지(경북, 자율주행), 젠바디(충남, 바이오) 등은 벤처투자 유치 이후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에이투지) '23년 세계 자율주행기술 13위, (젠바디) '23년 코로나 키트 美FDA 허가
    - \*\* '21년 벤처투자 유치기업 1,815개사는 투자 유치 이후 1.5만개 일자리 창출(기업당 8개)
  - 비수도권 소재 창업·벤처기업의 고용은 413만명(전국 913만명)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
    - \* 2030 청년세대의 43%가 향후 스타트업에 취업(이직)할 의사가 있으며, 고려 이유로
      - ▲ 자율·수평적 조직문화(45%), ▲ 기업 성장에 따른 성취감(37%)을 선택(중기부, '23)
- 벤처투자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는 다소 미흡
  -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4개 시·도간 벤처투자 활성화 정도도 격차 존재\*\*
    - \*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 ('20) 22 → ('21) 18 → ('22) 19 → ('23) 27 → ('24.上) 24
    - \*\* 지역 간 벤처투자 비교('23년, 대전을 100으로 환산)  
: 대전 100 > 경북 60 > 충북 57 > 부산 36 > ..... > 제주 6 > 전남 3
  - 비수도권에는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일부 존재, 벤처캐피탈 등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투자유치 기회가 부족
    - \* 벤처투자회사의 91%, 창업기획자의 68%가 수도권 소재 ('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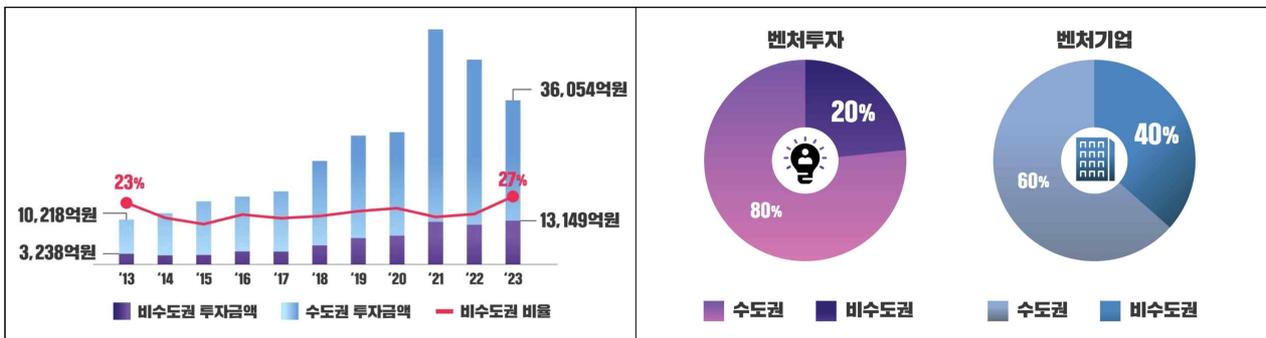
◇ 지역 벤처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모멘텀 확충 필요

## II.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1 비수도권 벤처투자 현황

- 최근 10년간('13~'23) 비수도권 벤처투자 규모는 중장기 성장세를 보이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여전히 지속 중
  - 비수도권 벤처투자 규모는 전체 시장 성장에 비례하여 年 15% 성장
    - \* 최근 10년간('13~'23) 벤처투자 규모 연평균성장률(%): (전체) 14, (비수도권) 15
  -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은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비수도권 벤처기업 비중(40%) 대비 저조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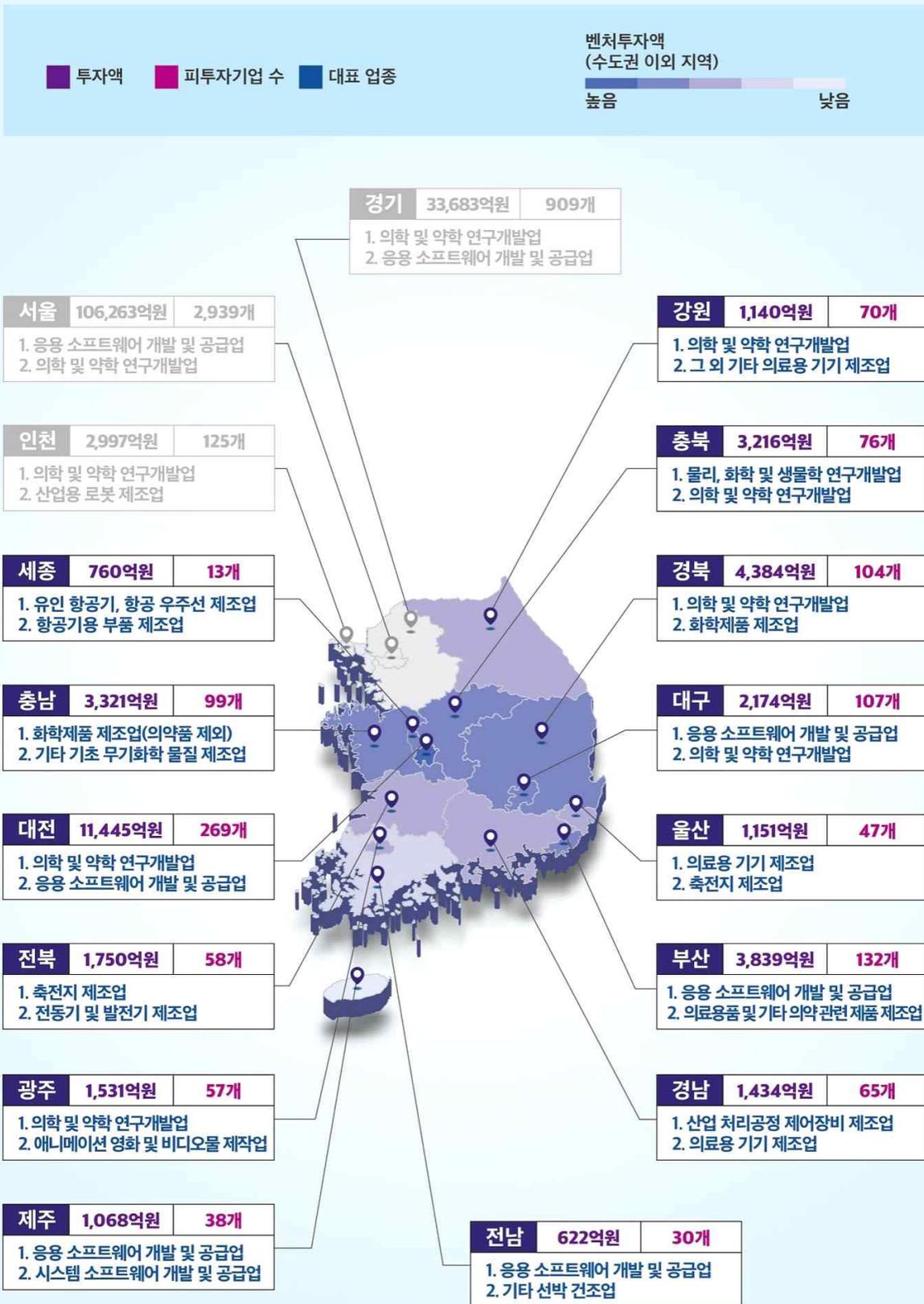
< 비수도권 벤처투자 금액 및 비중 ('13~'23) > < 벤처투자·벤처기업 비중 ('13~'23 평균) >



- 모태펀드가 조성한 지역 전용 벤처펀드는 年 4% 수익률 달성
  - \* 지역 전용펀드('06~'15) 조성액 1,624억원 → 청산 회수액 2,319억원 (수익배수 1.4배)
  - 청산완료 벤처펀드 13개 중 85%(11개)가 수익을 실현했으며, 손실이 발생한 15%(2개)도 손실률이 △0.1%에 불과
- 최근 지역에서도 대형 투자사례가 나타나는 등 비수도권에서도 성공사례가 등장

< 비수도권 대형 투자사례 >

에스엠랩 (울산)	▲ 이차전지 양극재 스타트업	▲ '21년 450억원(Series C) 투자 유치
모노리스 (제주)	▲ 스마트 기술 접목 테마파크 운영	▲ '22년 200억원(Series D) 투자 유치



지역	기업명	기업 개요	누적 투자유치 (억원)	기업 가치 (억원)	투자 후 일자리 증가(명)	연평균 일자리 증가율
부산	 피알지에스앤티	조로증, 신경섬유종증 등 희귀유전질환 치료제 R&D 전문기업	361	837	19	37%
대구	 다원메딕스	교종, 두경부암 등의 난치암 치료 방사선 의료 기기 개발 및 유지보수 기업	465	2,200	49	41%
광주	 에스오에스랩	자율주행 차량용 라이다 센서 개발 기업, '24년 코스닥 상장	535	928	41	18%
대전	 큐로셀	혈액암 환자 대상 차세대 CAR-T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 '23년 코스닥 상장	971	4,192	100	66%
울산	 에스엠랩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 개발·공급 기업, 글로벌 이차전지 제조사와 협업	2,390	5,250	69	71%
세종	 이노스페이스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형 위성용 로켓 발사체 개발 기업, '24.7월 코스닥 상장	703	2,006	111	66%
강원	 메쥬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다' 개발, '24.9월 국내 첫 FDA 인증	254	1,204	43	55%
충북	 엑소코바이오	엑소좀 기반 코스메슈티컬 제품 및 신약개발 기업, '23년 美 에스테틱 유통사 Benev 인수	620	2,050	106	63%
충남	 젠바디	신속 진단 핵심소재 및 키트 제조기업, '23년 코로나 키트 미국 FDA 허가	235	2,128	110	41%
전북	 성일하이텍	배터리 리사이클링(리튬이온전지 → 양극재) 전문기업, '22년 코스닥 상장	795	6,663	355	31%
전남	 빈센	친환경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기업, 국내외 해운사에 시스템 공급 추진 중	399	870	20	30%
경북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자율주행 및 차량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개발기업, '23년 자율주행기술 세계 13위	521	1,872	67	38%
경남	 킥더허들	건강식품, 영양제 상담 서비스 등 뷰티·헬스케어 및 미디어 커머스 사업 기업	156	1,327	101	85%
제주	 모노리스	ICT 기술로 스포츠와 게임을 융합한 신개념 테마파크 '9.81파크' 개발 및 운영	805	2,040	62	28%
<b>합 계 (평균)</b>					<b>1,253</b>	<b>48%</b>

## 2 개선 필요사항

- 그간 지방 벤처투자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의 수도권 편중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전면 전환할 계기 마련이 필요

현장의 목소리

“지방에는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고,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 벤처투자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음” (지자체)

- 특히, 지역에서의 대규모 펀드 조성 사례가 적어, 지자체·지방은행·지역 거점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

\* 300억원 이상 펀드 비중(%): (전체 모태펀드 자펀드) 36 (지역 전용) 3

- 지자체·지방은행 등의 벤처투자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도 존재

현장의 목소리

“벤처펀드 출자금의 위험가중치가 워낙 높다 보니, 금융지주 연결재무제표에도 부담이 되어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없음” (지방은행)

- BIS 비율 등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상 벤처투자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지방은행 등 금융권의 과감한 벤처투자 확대의 한계로 작용
- 지방에서 벤처투자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조성규모가 작아, 분산투자 등을 통한 성과 창출에 한계

\* 최근 5년간('19~'23) 개인투자조합 1개 조합당 평균 조성규모: 7억원

- 최근 지자체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참여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성, 네트워크 확보 등에 애로 존재

현장의 목소리

“벤처투자 전담 직원이 소수인 지자체 여건 상 전문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워 지자체와의 출자 협의 시 애로사항 존재” (벤처캐피탈)

- 지역 혁신기업도 벤처캐피탈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투자자를 만날 기회 자체가 부족하고,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호소

### Ⅲ. 추진 전략

#### 비전

**“벤처·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 구현”**

#### 목표

##### 비수도권 벤처투자 규모



#####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



\* 중기부 소관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기준

#### 세부 추진방향

##### 지방시대 벤처펀드 신설

- 민·관 합동으로 1조원 규모 자금 조달
- 민간 투자자 참여 촉진 인센티브 제공
- 지역별 안배를 통한 균형 성장 촉진
- 지역 자율형 투자 분야 운영

##### 지역 친화적 제도 운영

- 은행의 위험가중치 특례 적용
-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규제 완화
- 지방 특화 벤처투자자 육성

##### 벤처투자 인프라 확충

- 지방 벤처투자 거버넌스 구축
- 스타트업 파크 중심 보육·투자종합 지원
- 지방에서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

### Ⅲ. 세부 추진방안

#### 1 지방시대 벤처펀드 신설

- (펀드조성) 3년간('25~'27) 1조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
  - 모태펀드 출자를 마중물로 지자체,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이 참여, 1조원 규모 지역별 지방시대 벤처펀드(모펀드) 조성 추진
    - 지역별 모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면서,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
    - '25년 모태펀드 지방계정 출자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000억원으로 확대('24. 1,000 → '25안. 2,000억원)
  - 특히, 모태펀드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공동 조성하는 '인구활력펀드'를 매년 1천억원 규모로 조성('24년 200억원 규모 시범 조성 중)
    - 인구활력 펀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이주예정 기업에도 투자하여 지역 내 기업유치를 촉진

<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구조 >



- **(유인구조)**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자금의 손실 가능성은 낮추고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에서 지역에 투자하는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다수의 민간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해도,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여 출자까지 이어지지 못함” (지자체)

- 펀드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투자자에 대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 이전, 지분매입권(콜옵션)** 등 제공 (지자체 등 정부재원은 제외)

<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

- ① **(우선손실충당)** 손실 발생시, 모태펀드가 펀드결성액의 10% 이내에서 민간투자자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
- ② **(초과수익이전)** 사전에 약정된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30% 이내에서 민간투자자에게 배분
- ③ **(지분매입권)** 모태펀드가 보유한 지분의 30% 이내를 민간투자자가 사후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 부여

- **(지역선정)** 균형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년 내 최소 1개 이상의 벤처펀드 조성 지원**

- 모태펀드의 출자지역 선정 시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 **민간의 출자 의향을 확보한 지역을 우선 선정**

\* '25년 예산 확정 시 지자체 공모 절차 진행 예정 ('25.1월)

- 지역의 출자규모가 클수록 모태펀드 출자금 배정도 **상향하는 구조로**, 모태펀드가 최대 60%, 지자체 등이 40% 이상 출자하여 모펀드 조성

- **대형·중소형 트랙을 구분하여 운영**, 대형 펀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 트랙에 모태펀드 출자비중 **우대 제공**

- **(투자대상)** 비수도권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되, 지역에서 투자대상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설정

## 2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 제도 운영

- 은행이 벤처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가 출자하는 정책 목적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RWA) 예외 적용(400 → 100%)

\* 위험가중치(%): (부동산 PF) 150, (상장주식) 250, (벤처투자) 400

### < 제26차 민생토론회(24.6.20)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 >

“지역에는 벤처캐피탈이 부족하므로 은행의 역할이 중요, 지역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이 스타트업 육성 및 모험투자 역할을 확대해야 함”

-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지역 혁신기업 성장 지원 목적으로 모태펀드, 지자체가 출자하는 등 예외 요건을 충족, 위험가중치 100% 적용

위험가중치 100% 적용 기준	(예시) 지방시대 벤처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li> <li>②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li> <li>③ 정부 감독 하 지분율투자지역 등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비수도권 소재 기업 성장 지원을 목적</li> <li>② 정부(모태펀드)가 일정 비율 출자</li> <li>③ 정부 감독 하 비수도권 기업에 중점 투자</li> </ul>

- 지방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규제 완화

- 지방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30 → 40%)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조성규모 확대 촉진

\*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개인 및 법인이 출자, 초기기업에 중점 투자)에 한정

- 특히, 지자체 및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이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 시, 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을 49%까지 상향

현장의 목소리

“지자체가 지역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법인 출자한도로 인해 개인투자금 모집 부담이 증가하여 결성 애로” (지역 창업기획자)

<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비중 상향 >



- 모태펀드 투자 의무 산정 시 비수도권은 업력 5년 이내 기업을 초기기업으로 인정(현행: 3년)하여 비교적 성장이 느린 특수성 반영
- **쏠 모태펀드 자펀드가 지역투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투자분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비율을 상향 (예: 120%\*)

\* 예: 여성기업 펀드가 비수도권 소재 여성기업에 10억 투자할 경우, 주목적 투자 비율(여성기업 투자비율) 산정 시 12억 투자한 것으로 간주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태펀드 출자사업 참여 시 부채비율(200% 이내)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여 지역 소재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기반 마련
- \* (현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채로 계상 → (개선) 보조금은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지방 특화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자생적 벤처생태계 조성

- 지방시대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시 지방에 본점이 소재하고, 지방 투자실적이 우수한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정
- 지방의 우수 투자자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확대\*하여 정부가 인정한 투자자라는 명성을 토대로 민간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 Korea VC Awards(혁신벤처생태계 발전 유공자 포상) 시 지방 투자자는 별도 심사 선정

### 3 지방 벤처투자 인프라 확충

#### □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축

현장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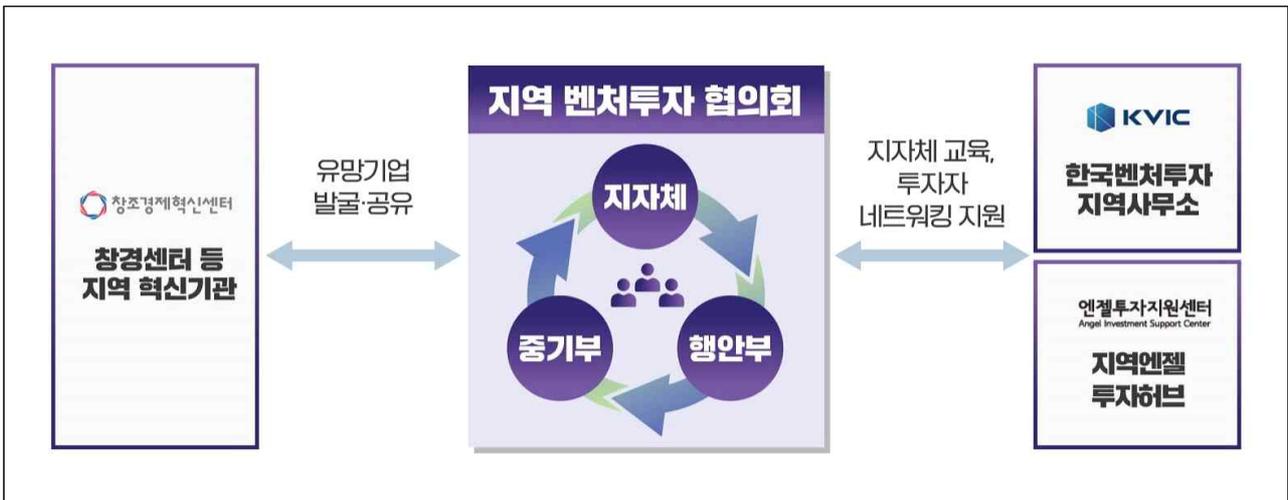
“지자체는 VC와의 교류 기회가 부족하므로 한국벤처투자와 같은 전문기관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장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지자체)

“벤처투자 전담 직원이 소수인 지자체 여건 상 전문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워 지자체와의 출자 협의 시 애로사항 존재” (벤처캐피탈)

#### ○ 중기부·행안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 신설(25.1분기)

- 지역 투자현황,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등을 정례 논의하고 지역 내 투자자 네트워크를 구성

<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 도식도 >



- 지역 벤처분 조성의 허브로서 한국벤처투자 지역사무소\*를 확대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원기관과 연계 강화

\* 현재 동남권(부산) 1개소 운영

#### ○ 지자체, 지역 지원기관 등 관리자 특화 벤처투자 교육과정 신설

- 벤처투자 전문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벤처펀드 출자를 위한 예산 편성 절차, 출자자(LP)의 권한과 책임 등 관리업무 전반을 안내

□ 지방 창업 허브 '스타트업 파크' 중심으로 보육·투자 종합 지원

- 지역 스타트업에 입주 공간 및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파크'를 지속 조성(2개 개소, 3개 조성 중)

\* (예) 입주 대기업이 스타트업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 지원, 성장전략 컨설팅 등

\*\* (개소) 인천, 천안,  
(조성중) 대전, 경산, 부산



-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지방 유망기업 보육,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유치 연계 등 종합 지원

□ 지방 순회 IR 개최로 지역 혁신기업과 투자자 간 교류 기회 확대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통해 연중·상시적으로 지방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 확충

\* 매주 센터별 소규모 IR 개최 → 창경센터 직접 초기투자 → TIPS 연계 지원 등

- 창업-BuS 선발기업 등 지역 스타트업을 수도권 투자자 등에 소개하는 권역별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年 5회 개최\*

\* (예) 동남권,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 등 권역별 1회 개최

- 권역별 IR에서 투자유치에 성공한 우수 기업은 'K-Global Star\*'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후속투자 유치 지원

\* '24년 신설, 일본(5월), 싱가포르(8월)에서 국내외 투자자 80개사 대상 IR 개최

< 기업 성장단계별 IR 개최 >



## VI.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b>① 지방시대 벤처펀드 신설</b>		
• 1조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중기부	'25~'27
• 인구활력펀드 조성	중기부 행안부	'24.4Q~
<b>②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 제도 운영</b>		
• 은행의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 적용	금융위	'24.4Q~
•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한도 상향	중기부	'25.1Q
• 창경센터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참여기준 합리화	중기부	'25.1Q
• 지방투자에 대한 모태펀드 주목적 투자 인정비율 상향	중기부	'25.1Q
• 지방시대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시 지방 운용사 가점 부여	중기부	'25.3Q
• 지방 우수 벤처캐피탈 대상 정부포상 확대	중기부	'25.4Q
<b>③ 지방 벤처투자 인프라 확충</b>		
•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 신설	중기부 행안부 지자체 등	'25.1Q
• 한국벤처투자 지역사무소 확대	중기부	'25.1Q~
• 지자체 등 관리자 특화 벤처투자 교육과정 신설	중기부	'25.2Q
• 스타트업파크 중심 보육·투자 종합 지원	중기부	'25.1Q~
• 지방 순회 IR 개최	중기부	'25.1Q~